

'5월' 벗어나 연중 상시교육 전환해야



5·18교육, 미래세대의 소통허지

<5>앞으로의 교육 방향

문화·교육 콘텐츠 등 간접체험
오월정신·가치 스스로 체득 중요
사적지 활용 교육 프로그램 필요

일선 현장에서는 학생 스스로 오월 정신과 가치를 찾는 방식으로 5·18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여기에 5·18교육의 연중 상시화와, 심화 교육 과정 도입,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 제작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5·18교육은 역사적 사실을 단순 암기하던 과정에서 한 발 나아가 계기수업으로 미래세대에 게 5·18의 역사와 가치,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에 수록돼 있다. 한 두줄 정도로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된 수준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오월정신을 제대로 가르칠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광주시교육청과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 인정교과서를 2021년 발간했다. 5·18의 발생 배경 등 역사적 사실은 물론이고 역사 왜곡 대응, 사회적 연대와 실천 방안이 이르는 깊이 있는 주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5·18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객관화 된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교육 콘텐츠와 체험 등 간접경험을 통해 학생 스스로 오월정신과 가치를 체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남진 무등중 교사는 "현재진행형인 5·18 민주화운동을 학생들이 스스로 오월 정신과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사는 그 방법으로 "5·18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연중 상시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월 주간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도 오월 정신의 세대 계승을 위해 오월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를 이어줄 중간 역할을 할 전국 단위 교사연수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 학습 동아리 구성 및 직무연수 운영, 518교육 구리미 제작 및 보급 등으로 연중 추진되고 있다.

그는 "현재 교직에는 5·18을 겪지 않은 선생님 이 미래세대에게 5·18을 가르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교사들도 5·18 교육을 힘써야 한다.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가르치는 것으로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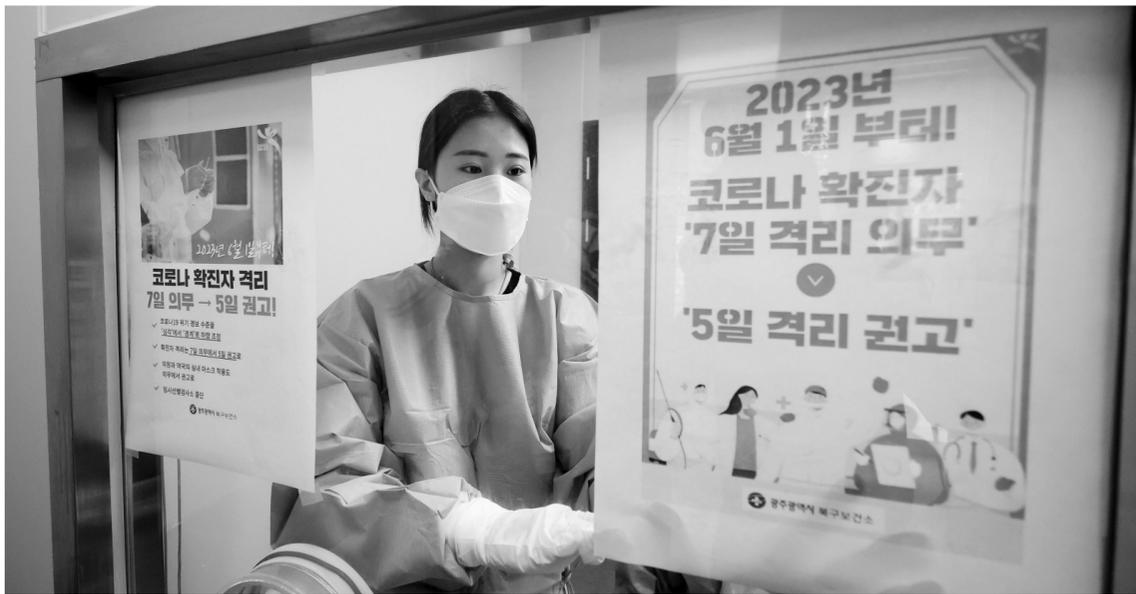
이어 "계기수업으로 배운 5·18은 기본 수준이다.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5·18에 관한

지식은 비슷한 수준이다"며 "학년에 맞는 기본을 넘어선 심화 학습 과정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는 문화·체험 콘텐츠 제작해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학교에서 만난 대부분의 학생들은 5·18을 무겁고 지루하고 딱딱한 역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정도로 인지할 뿐이다.

또 다른 역사 교사는 "광주시교육청이나 학교에도 5·18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많다"며 "교직원들의 증언 또는 구술, 교육시설 내 5·18 사적지, 청소년 역사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정중 이동철 교사는 "다양한 체험 교육을 통해 5·18을 생존자, 유족, 가해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간접 경험하며 삶과 5·18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을 때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 된다"며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학생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5·18의 가치와 정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끝> /황애란 기자



코로나 의무 격리 해제 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를 해제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북구, 오늘 '어르신 효 음악회' 트로트 등 문화공연 행사 다채

광주시 북구는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과 오는 31일 동강대학교 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 900여 명을 초청해 '북구 어르신 효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어

르신들께 흥겨운 문화공연을 제공해 즐거움과 심적 여유를 드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코미디언 김정렬씨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무대는 현숙, 박일준, 민지, 문연주 등 트로트 가수들의 열창과 함께 팝페라, 궁중한복쇼, 마술공연, 댄스 등 다양한 공연으로 채워진다.

또한 문인 북구정장과 구의원, 자원봉사자 60여명이 참석해 어르신들께 공경과 감사의 마

음을 전하고 공연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행사 진행을 도울 계획이다.

안전용 한국나눔연맹사무총장은 "북구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인 북구정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효 정신을 실천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옛 전남도청 복원 전시콘텐츠 세미나

고증·서사 바탕 가상 구현

1980년 5월의 모습으로 복원 예정인 옛 전남도청에 전시할 콘텐츠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옛 전남도청복원 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31일 오후 1시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전시콘텐츠 복원 모델 도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505억원으로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전시콘텐츠를 구성해 2025년 개관할 예정이다.

이중 전시콘텐츠 사업비는 약 110억원으로, 고증과 서사를 바탕으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실물 또는 가상 콘텐츠로 구현

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시콘텐츠의 구체적인 구성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한다.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전시콘텐츠 구현안 경과를 보고하고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이 '복원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하나의 제안', 이동기 강원대 평화학과 교수가 '방문객 입장에서 본 전시와 운영'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기근 광주전남연구원 실장, 홍성철 복원대책위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송윤석 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옛 전남도청의 구체적인 전시 구현안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유관 단체,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충실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찬기 기자

영산강청, 폐기물 부적정처리업체 9곳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13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업장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질적인 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로 인해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정·지자체·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올바른 시스템 인계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를 선정했다.

점검결과, 9개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올바른시스템 미입력 및 부실입력 7건, 폐기물처리 실적보고 기간 내 미제출 2건 등 12건을 적발했다.

이중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고발 대상 2건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위반 건에 대해서는 관할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 /우성진 기자

상무지구 상가(매매)

▶ 중심 상업지구
(6층, 7층) = 140평

시세 → 14억
← 금매 6억8천

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

장성토지 매매

▶ 장성호(댐) - 5분
광주 - 20분

토목공사 완료
6m 도로접

(100평,150평,200평 가능)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산구 연산동 (근린시설) ▶ 감정가 29억 → 최저가 20억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 ▶ 감정가 50억 → 최저가 28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광주 동구 불로동 (근린주택) ▶ 감정가 31억 → 최저가 22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5천
광산구 수완동 (근린상가) ▶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2천
북구 운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2천
나주 빛가람동(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19억

010-6670-9800